

번호 13-1

| | | | | | |
|-----------|--|--|-------------|-------|-----------|
| 제 목 | 국문 | 서울시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요법 사용현황에 관한 단면연구 | | | |
| | 영문 | A cross sectional study on the use of the CAM for the cancer patient in the 7 general hospitals. | | | |
| 저 자 및 소 속 | 국문 | 신유철, 이은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 | |
| | 영문 | You-Cheol Shin, Eunil Lee | | | |
| 분 야 | 보건관리 () | 발 표 자 | 일반회원 () | 발표 형식 | 구 연 (0) |
| | 역 학 (0) | | 전 공 의 (0) | | 포스터 () |
| 환 경 () | | | | | |
| 진행 상황 | 연구완료(0),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 | | | |

1. 연구 목적

보조 및 대체요법(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은 미국 Einsenberg, David M등의 정의에 의하면 미국 의과대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미국의 병원에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중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 1993년의 전화 survey 조사를 통해서 조사대상 1539명중 34%가 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후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비의 상승, 그리고 실제 환자들에 있어서의 정통요법에 대한 실망감등으로 대체요법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의료보험회사에서는 대체요법을 권장하고 있고, 의과대학에서도 정식강좌가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는 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OAM)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연구를 통해서 국내의 대체요법현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요법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이후의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3차의료기관 7개 병원에 대해서 1999년 4월 1일에서 1999년 6월 31일 사이에 입원해 있는 암환자와 2개 병원의 치료방사선과 외래에서 치료받고 있는 암환자에 대한 단면연구가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원에 의한 직접면담이 이루어 졌고, 조사내용은 기본적인 환자의 인적특성과 대체요법사용여부, 사용종류, 사용시기등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자료에 대해서 χ^2 test 등의 통계분석이 시행되었다.

3.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중 대체요법을 사용한다고 답한사람은 전체 512명중 282명으로 55.6%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체요법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종교 그리고 진단받은 암의 종류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화기 계통의 암의 경우에는 전체 대상자 155명중 99명이 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암종들의 높은 비율로 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86%가 암을 진단받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고 대체요법에 대한 정보는 14%가 신문을 통해서, 21.6%가 TV, 라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사람을 통하는 경우가 75.5%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을 통하는 경우는 3%정도로 가장 낮았다. (여러개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음) 건강관련서적이나 다른 암환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각각 35%와 32.7%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체요법에 대한 반응은 “부작용이 있었다”가 2.4%, “도움이 안되었다.”가 44.3%, “도움이 약간 되었다.”가 44.3%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9%정도로 나타났다.

4. 고찰

본 연구는 서울시내 7개 종합병원의 암환자에 대해서 대체요법 사용현황에 대한 단면조사를 한 연구로 연구결과 55.6%정도가 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체요법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실제 본 연구에서도 병원 치료를 포기하거나 받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포함된다면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사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요법의 범주로 포함시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점점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이 분야의 연구가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